

가정교육과 전공 교육과정 분석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인식

박 은 숙(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육은 교사, 학생과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이므로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훌륭한 교사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교육과 전공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대학의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현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국 16개 대학의 가정교육과(국립 6개교, 사립 10개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교육실습생의 교과과정과 중등학교 교육 현장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1999년 5월 30일부터 7월30일까지 교육실습을 마친 가정교육과 재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가정교육과 전체의 전공 개설 교과목 수는 41.2개였으며, 94.5학점이었다. 개설 교과목 수는 국립대학(35.3개)이 사립대학(29.3개)보다 많았으며, 학점수도 국립대학(99.7)이 사립대학(91.4)보다 많았다. 교과교육학 개설 교과목 수를 비교해 보면 국립대학(4.5개)이 사립대학(2.0개)보다 많았으며, 학점수도 국립대학(12.8)이 사립대학(5.1)보다 많았다. 교과교육학 개설 교과목 수는 0~6과목(18학점)으로 학교 간의 차이가 많았다. 전공기초 개설 교과목 수는 전체가 0.7(1.2학점)이었으며, 국립대학이 1.0(2.8학점), 사립대학이 0.5(1.2학점)이었으며, 7개 대학은 전공 기초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교과내용학의 개설 교과목 수는 국립대학(30.8)과 사립대학(29.3)의 차이가 많지 않았으며 학점수도 국립대학(86.8)과 사립대학(86.3)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교과내용학의 개설 교과목 수 역시 국립대학(30.8)과 사립대학(29.3)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체 대학의 교과내용학의 영역별 개설 교과목 수는 가정관리 영역(11.1), 식생활 영역(9.4), 의생활 영역(8.7)의 순이었으며, 영역별 개설 학점수도 가정관리 영역(32.2), 식생활 영역(26.8), 의생활 영역(23.5)의 순이었다. 교과교육학 교과목의 개설 빈도는 '가정교육론'(70~79%)과 '가정교육연구'(60~69%)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교수매체연구'(40~49%) 순이었다. 전공기초 교과목은 '가정학원론'(60~69%), '유기화학'(30~39%), '생리학'(30~39%)의 개설 빈도가 높았다. 교육실습생의 15.0%가 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육실습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34.8%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50.5%의 대상자가 교과교육학 교과목이 교육 현장에서 중등학생을

가르치기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17.3%는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57.3%가 교과내용학은 중등학생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8%는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교과교육학이 교육실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학문 위주의 강의, 교수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이수 학점 부족 순이었고 교과내용학이 교육실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학문 위주의 강의, 수업 내용의 난이도 등으로 나타났다.